

옥수수 수확대행단 출동

임실군, 10억원 투입 10월까지 활동 돌입... 농가 소득증대 기여

심 민 임실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업인 농작업 대행 작업단이 농가들의 큰 호응 속에 이달부터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의 농작업 대행에 돌입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옥수수 수확 농작업 대행사업은 작년보다 신청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임실군의 축산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노력을 특목히 해내고 있다.

8월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10월까지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농작업 대행을 추진, 옥수수 수확 대행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공약사업인 만큼 농작업 대행 작업단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는 심 군수는 이날 옥수수 수확현장을 찾아가 농민들을 만나고,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을 다하는 수확대행단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옥수수 수확대행단은 관촌면과 오수면, 성수면 일대의 26개의 옥수수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대행해 해주며, 고품질 옥수수를 수확하는 데 큰 힘을 실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농가가 지난 해 43ha, 45농가에서 올해 67ha에 64농가로 156% 획기적으로 증가, 옥수수 수확대행단의 활동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군은 지난 해 농작업 대행 작업단에 약 1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보리 전용 수확기 및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작업기인 지주식 베일러 등 총 8종 16대의 농기계를 확보, 고품질 옥수수 수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다.

또한 군은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농가 교육 및 간담회와 들녘 대표자를 선발해 단계별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농기계 임대사업팀도 옥수수 수확장

비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옥수수 수확전 농작업단에 대한 안전교육 및 기계장비 운영교육을 가졌다.

앞선 6월에는 보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보리수확 농작업 대행한 결과 작년보다(36ha 40농가) 175%가 증가한 63ha 52농가에 이모작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군은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을 통해 보리와 옥수수 농가의 재배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농축산 농가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 군수는 이날 현장에서 "옥수수 수확 농작업 대행을 통해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200ha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품질 사일리지를 가족에게 공급해 명품한우와 명품치즈 등 임실군 축산물의 명품화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오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밤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강천산 환상캠핑' 리는 이름으로 빛을 이용한 다양한 쇼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천산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순창군, 오는 11~20일까지 오후 8시부터 환상캠핑

순창 강천산에서 레이저 등을 이용한 환상의 빛의 쇼가 드디어 막을 연다.

군은 오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밤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강천산 환상캠핑'라는 이름으로 빛을 이용한 다양한 쇼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천산 병풍폭포를 중심으로 빛 융합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연공원에서 미디어 공연과 색다른 야간 산책로로

경험할 수 있다.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환상의 병풍도'는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쇼로, 폭포와 절벽에 자연의 모습을 영상화한 영상 등을 빔프로젝터로 쏘아 실사의 자연과 환상의 빛 이미지를 융합하는 환상의 쇼가 펼쳐진다.

두 번째 '환상의 캔버스'는 인터랙티브 아트쇼로 관광객이 빛을 물감삼아 특수 제작된 캔으로 그림을 그리면 병풍폭포 암벽에 그림이 실시간으로 영상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환상의 마을 티피텐트존'은 다양한 체험이 있는 환상의 시간으로 병풍폭포 구역내 8개 동의 티피텐트에 머물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환상의 마을 티피텐트존에서는 밤의 숲을 채우는 음악공연과 환상쇼 버스킹 공연, 뉴미디어로 그리는 나만의 동물캐릭터 증강현실 색칠놀이도 진행된다. 또 환상의 타로카드로 즐기는 타로점, 밤에 빛나는 아광케이스 페인팅 등 체험거리가 풍부하다.

한편 이번 환상캠핑 빛의 쇼는 선착순 입장가능하며 순창군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단 외부 관광객은 공원 입장료 3,000원을 내고 입장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8월 성수면 소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임실농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소통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농가·대형유통마켓 바이어 한자리

임실군,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소통한마당 행사

임실군이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임실군은 8월 성수면 소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지역 농산물 재배농가와 대형유통마켓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여 임실농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소통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민 군수와 문영두 군 의장, 최완 농협군지부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농산물 공신출하 농가, 바이어, 마케팅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소통한마당 행사는 지역 농산물 재배농가와 대형유통마켓 바이어가 만나 서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통 정보 등을 교환하며서 임실군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실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판매 촉진에 기여한 농협양재유통 교역직 팀장에게 군수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바이어와 마케팅전문가 등은 공신회 출하농가와 함께 APC시설을 둘러보며 선별작업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노인일자리 추가 확보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남원시는 7월 정부 추경을 통해 140명의 노인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 참여노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이에 시는 6억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전체 공익형 사업 1,848명 지사의 활동비를 8월부터 5만원 인상된 27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경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이 사업은 각 읍면동에 있는 간이체육시설, 경로당 주변 정리와 꽃길 조성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 이미지를 한 뼘 더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남원시는 추경포함 44억6,400만원으로 1,975명이 총 30개 수행기관(읍면동23, 수행기관7)에서 37개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창출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동비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20만원이었다가 2017년 1월 처음으로 10% 인상된 22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27만원으로 다시 인상됐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확보와 자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학교 폭력, 학생이 해결한다

임실군 또래캠핑 운영... 상담자 양성 주력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캠프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실군이 주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신형)가 주관한 '2017년도 또래상담 캠프'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지역 중·고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리산 생태탐방원수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각 학교 또래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을 선발해 집단상담, 조별미션, 레크리에이션, 체험활동 등이 진행됐다.

임실고, 한국치즈과학고, 임실동중에서 또래상담자로 활동 중인 학생들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어려웠던 점과 자신만의 노하우

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송은정(임실고 3학년) 학생은 "막막하고 어려웠던 상담이 진행되는 방법을 직접 연습하고 다른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신형 센터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격과 소양을 갖춘 또래상담자 양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캠페인, 역량강화 교육,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폭염 속 온열질환 발생 주의해야 남원시, 8월 첫 주~둘째 주 당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8월 1주에서 2주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날은 가장 취약한 시간(12시~15시)중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논·밭작업 등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늦은 잠자의 영향으로 온열질환자가 일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 초부터는 환자가 늘 수 있으므로 매일 기상정보를 확인해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